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213~239

고대 마야인의 2012년 종말론에 관한 학술적 고찰

송 영 복*
(Song, Young-Bok)

〈Abstract〉

Los antiguos Mayas no hablaron del fin del mundo

Muchos libros y diferentes medios hablan sobre una profecia del fin del mundo. El 21 de Diciembre de 2012, o sea el próximo 13 Baktún para los mayas sería el último día de este mundo según los que creen. El calendario maya esta justamente en el centro de la discusión de esta inquietud de la humanidad. Pero esta es una interpretación arbitraria que no tiene validez académica.

La estela 6 de Tortuquero es la evidencia más importante para los escatologos. Pero según las interpretaciones serias acerca del glifo O4 y O5 relacionandose con los demás glifos, la estela no habla del tiempo futuro y su contexto no tiene nada que ver con el fin del mundo.

En el panel del templo de la cruz de Palenque y la estela C de Quirigua también está escrito el 13 Baktún. Los textos conmemoran los eventos importantes de las mismas ciudades. Ellos hicieron un fogón nuevo o levantaron las piedras, literalmente, para el acto de la inauguración del nuevo edificio, aldea o algo relacionado. Es de

*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songyb@khu.ac.kr

pensar que la fecha 13 Baktún fue utilizada en estos textos para celebrar un momento histórico positivo, no negativo.

Por otro lado, esta escatología fue provocada por el malentendimiento de la cosmología maya y el sistema de su calendario. No sabemos exactamente que el 13 Baktún sería el ú ltimo día del ciclo calendarico. Así que el calendario maya se puede seguir sin fin con varias posibilidades sin tener un ciclo nuevo. O se puede tener simplemente un nuevo ciclo sin ningún asunto físico notable. Por lo tanto, hablar del fin del tiempo maya sería una interpretación arbitraria. La cuenta larga del estela 1 de Cobá narra hasta casi un tiempo infinito.

Además el calculo de la fecha 21 de Diciembre de 2012 no es una conclusión definitiva, sino todavia está sujeto a cambiar através del desarrollo del campo académico. Consecutivamente, la coincidencia entre las demás evidencias astronómicas y la fecha maya, la cual fue utilizada para mostrar la seriedad de la escatalogia, no es firmemente sustentable.

Quizá habrá un fin del mundo, por cualquier causa, en cualquier momento pero por lo menos los mayas no lo indicaron en su calendario.

[Key Words: Maya/ Tortuguero/ Escatología/ Calendario/ 2012/ Profecia]
[주제어: 마야/ 또르뚜게로/ 종말론/ 달력/ 2012/ 예언]

Ⅰ. 들어가는 글

마야 사람들이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

고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어 일반서적,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서적류만 보더라도 2012년 마야가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였다는 내용을 주된 혹은 부수적인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한국어 단행본이 이미 10여권을 넘어섰다. 서양서적(브레이든 2008; 2009; 조지프 2007; 히치콕 2010)이나 일본서적(나미키 2009)을 옮긴 번역서에서부터 한국인저자(김재수 2009; 현홍균 1998)나 편자(박찬호 2009; 이경기 2010)의 책들도 있고, 내용면에서도 위에서 들은 논픽션뿐만이 아니라 픽션도 존재한다(글래드스톤; 스트리버). 서적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2012). 인터넷의 이야깃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역시 이 테마를 다루고 있다(그것이 알고 싶다 2009).

이와 관련하여 대중적인 이야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출판 상황은 더욱 고무적이어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수백 권의 관련 서적들이 출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한국서적들은 관련 내용의 소개와 주장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의 서적은 좀 더 구체적인 테마를 다루거나(Barrios 2009; Macia 2009), 더 나아가 2012년의 대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Gerly 2007)까지도 있을 정도이다. 멕시코나 유럽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2012년 지구 종말과 관련된 문제는 그 진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혹은 이 주장이 과학적이건 비과학적이건을 떠나서 이미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탈바꿈하였다.

책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주장하는 2012년의 멸망설에는 지구, 우주과학, 역학, 천문학, 수학, 환경학 등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거들에는 공통적으로 2012년이라는 연도가 등장하며-많은

경우는 더욱 구체적으로 2012년 12월 21이라는 날짜까지 소개한다- 그 연도는 마야 달력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특히 마야 유적지인 또르뚜게로(Tortuguero)의 6번 비석에 나오는 구문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마야가 그러한 것을 예언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만일 마야가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학술적인 차원의 대답을 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실제 지구의 멸망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단지 마야가 그들의 달력과 문자를 통해 지구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마야가 지구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멸망론자들이 주장하는 마야유적지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에 나타나는 멸망에 대한 언급이 극히 주관적일 뿐더러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한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살펴보겠다. 마야의 달력이 2012년에 끝난다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해 볼 것이고, 마야인들은 직선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력을 통해서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확인해 볼 것이다.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마야 달력의 이전주기에 고고학적으로나 마야문자학적으로 볼 때 멸망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2012년 12월 21일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는 점도 역시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역시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과정의 배경 지식으로, 논문의 앞부분에서 마야달력의 체제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야달력의 13 박뚠(Baktun)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마야달력의 체계

마야 문명과 관련된 서적 등을 통해서 마야 달력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하여 접할 수 있기에 여기에서는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야달력체계에 대하여만 언급하겠다.[1)]

마야달력은 "긴 달력"과 "짧은 달력"으로 나뉜다. 짧은 달력은 다시 쏠낀(Tzolkin)이라는 260일 달력과 하압(Haab)이라는 365일 달력으로 나뉜다. 달력의 숫자들은 점과 선, 그리고 조개와 같은 모양을 한 '0'의 값을 가지는 부호들, 또는 이에 해당하는 마야 문자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달력의 달(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유의 39개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65일 달력에 해당되는 19개의 문자와 260일 달력에 해당되는 20개의 문자가 존재한다.

260일 달력 쏠낀(Tzolkin)은 20개의 기호와 1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서 이의 조합은 260일(260=13일X20달)이 된다.

365일 달력인 하압(Haab)은 태양력으로 18개의 달에 해당하는 기호와 20일의 날짜, 거기에 우아옙(Uayeb)이라는 5일짜리 달이 더해져【365=(20일X18달)+5일】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 매우 비슷하며, 태양력으로는 365일을 그 주기로 가진다.

짧은 달력은 260X365＝【13숫자(1~13) X 20기호】X【20숫자(0~19) X 18기호(+1기호)】예) 4 아하우(Ahau) 8 꿈후(Kumhu) - 4는 열 세 개의 숫자에, 아하우(Ahau)는 스무 개의 기호에 해당하며 8은 스무 개의 숫자 중

1) 송영복(2005)과 송영복(2007) 등을 참조

의 하나이고, 꿈후(Kumhu)는 18+1 기호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긴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이 마야의 지구멸망 예언 주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긴 달력은 20진법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10진법은 10이 채워지면 한 자리가 올라가는 것인데, 20진법은 20이 채워져야 한 자리가 올라간다. 한편 긴 달력은 무한의 주기를 가진다, 혹은 약 5128년의 주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달력의 주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원리만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이 20진법으로 이루어졌지만 태양력과 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두 번째 자리인 우이날(Uinal)에서 세 번째 자리인 뚠(Tun)으로 올라갈 때는 18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긴 달력은 통상적으로는 박뚠(Baktun), 까뚠(Katun), 뚠(Tun), 우이날(Uinal), 낀(Kin)의 다섯 자리로 구성된다. 그렇지 않은 예는 2-3장에서 확인하겠다. 이것이 수학에서처럼 20진법의 규칙적인 값을 가진다면 낀(Kin)은 1, 우이날(Uinal)은 20, 뚠(Tun)은 400, 까뚠(Katun)은 8,000, 박뚠(Baktun)은 160,000이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뚠(Tun)이 18 우이날(Uinal)에서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1낀(Kin) = 1낀 = 1 ⅹ 1 = 1일
1우이날(Uinal) = 20낀 = 1 ⅹ 20 = 20일
1뚠(Tun) = 18우이날 = 20 ⅹ 18 = 360일
1까뚠(Katun) = 20뚠 = 360 ⅹ 20 = 7,200일
1박뚠(Baktun) = 20까뚠 = 7,200 ⅹ 20 = 144,000일

이러한 계산 방법이 달력에 이용되는 것을 이해해보자. 쉬운 예를 들

어 보면 4.3.2.1.0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이 날의 다음날은 4.3.2.1.1이 되고 그 다음날은 4.3.2.1.2 그리고 20일 후는 한 자리 숫자가 채워져서 다음으로 올라가면서 4.3.2.2.0이 된다.

이 긴 달력은 13.0.0.0.0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다.[2] 13.0.0.0.0이 되는 날이 0.0.0.0.0이 되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마야의 역사는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긴 달력으로 13.0.0.0.0(0.0.0.0.0) 짧은 달력으로 4아하우(Ahau)(260일 달력) 8꿈후(Kumhu)(365일 달력)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을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해보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로 이것이 일종의 마야 원년(元年)이라 말할 수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긴 달력이 0에서부터 시작된다.[3] 따라서 13.0.0.0.0의 다음날인 기원전 3114년 8월 14일은 0.0.0.0.1 그 다음날인 8월 15일은 0.0.0.0.2가 되며 20일 후는 0.0.0.1.0이 된다.

Ⅲ. 마야는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다.

1. 또르뚜게로(Tortuguero) 유적의 6번 비석은 멸망을 말하고 있지 않다.

또르뚜게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6번 비석은 멸망설의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 비석의 마지막 문구에 적힌 13박뚠(Baktun) 4아하우(Ahau) 3깐낀(K'ank'in)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고

2)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영복(2005) 21장과 22장 참조
3) 3114년 8월 13일 또는 3113년 8월 12일, 3114년 8월 15일 등 여러 의견이 있으나 3114년 8월 13일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Ⅲ 의 4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다.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석에 쓰여 있는 문구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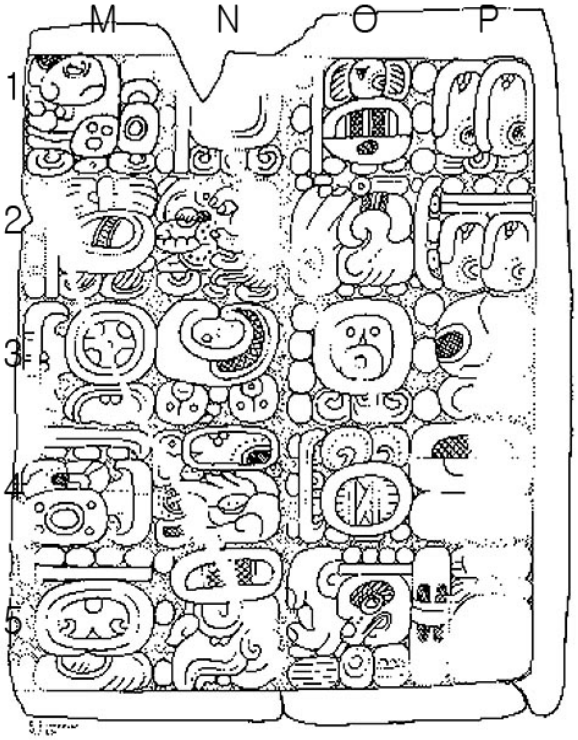

그림 1.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의 오른쪽날개부분

이 비석의 원래 모양은 T자 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자의 좌우 날개 부분 중 왼쪽 부분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그 부분이 구문의 시작부분이고 따라서 마야문구의 전형적인 예로 볼 때 그곳에 긴 달력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야의 비석이나 벽면 장식과 같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문구들은 시작부분에 머리글

자(Glifo Inicial)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긴 달력이 나온다. 따라서 이 비석은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긴 달력에 대한 정보를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구문을 해석하는데 그 날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오해의 소지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 비석의 다른 부분 역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서 일부는 소멸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7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 4조각은 멕시코 비야에르모사(Villa Hermosa)의 박물관(Museo Civico de Villahermosa)에, 1조각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New York Metropolitan Museum)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은 개인소장품으로 되어있다.

이 비석에서 지구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은 비석의 마지막부분이다. 오른쪽 날개부분의 P2, O3, P3의 문자가 각각 13박뚠(Baktun), 4아하우(Ahau), 3깐낀(K'ank'in)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기 힘들다. 즉 긴 달력으로 13.0.0.0.0 짧은 달력으로는 4아하우(Ahau) 3깐낀(K'ank'in)이라는 날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 날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멸망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원후 2012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이전 주기의 다른 날짜 혹은 그 이후 주기의 다른 날짜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만 13박뚠(Baktun), 4아하우(Ahau), 3깐낀(K'ank'in)의 날 중 현재의 우리인류와 가장 가까운 날이 2012년인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구문의 해석상 문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날이 2012년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Arellano 2007). 달력의 날짜가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신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미래의 시점을 예언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역시 곤란하다. 이 시점이 기원전의 훨씬 이전일 수도 있고 또 2012년

이후의 다른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정확한 시점에 대한 해석은 그 문장의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달력부분 이후에 이 문장 해석의 중심이 되는 O4~O5까지의 문구가 등장한다. 이 문구는 O4-P4-O5-P5의 차례로 읽혀지는데 그 중에 P4와 P5는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O4와 목적어가 되는 O5가 중요하다. 종말론에서는 O4를 “내려오다”, O5를 “볼론 욕떼(Bolon Yokte', 파괴의 신)”로 해석하여 “기원후 2012년 12월 21일에 파괴의 신이 내려온다”라고 보았고, 이를 더욱 확대 해석하여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는 비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비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파괴의 신이 내려온다”라는 문장의 뜻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구의 종말로 이해하는 것은 일단 그 해석면에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볼론 욕떼(Bolon Yokte')라는 신이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점도 설득력이 없다. 마야 신들은 변화와 불완전성 그리고 인간적인 면 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즉 모든 신들은 변화무쌍하여 아침에는 금성의 신이던 것이 저녁에는 노을의 신이 되는 등 변화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습성이 되고, 여기에 전지전능하지 않은 극히 인간적인 불완전한 신의 특징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신들의 세계에 참여하여 이를 도와주고 간섭하며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때 “파괴의 신이 내려온다”는 부분의 해석이 100% 옳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유추하여 그 해석을 지구의 종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설상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주와 신의 운명에 인간이 간섭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야의 우주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변화 불가한 서양적인 직선적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종말론은 마야의

철학과 우주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O4와 O5를 "파괴의 신이 내려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자체도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루베(2002, 112-113)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말했다.

> "the end of the 13th b'ahktun which we will see in the year 2012" and as to what will happen, they say, "…utom, "it will happen" (O4) followed by something that we cannot read (P4) and he "will descend" yem (O5). The last glyph begins with ta followed by something. However,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는 학술적인 견해에서 기원후 2012년의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판 휴스턴(2008) 역시 같은 맥락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 Whatever Monument 6 has to tell us pertains to the dedication of the building associated with the sculpture. It has nothing to do with prophecy or the supposed, dread events that await us in AD 2012.

데이빗 스튜어드(2006, 25)는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가하여 전체의 뜻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Thirteenth Bak'tun" will be finished (on) Four Ahaw, the Third of K'ank'in. ? will occur. (It will be) the descent(?) of the Nine Support (?) God(s) to the ?."

여기에서는 O5를 “Nine Support”라고 해석함으로써 “볼론 욕떼(Bolon Yokte')”를 “파괴의 신”과 같은 부정적인 뜻이 아닌 다른 긍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O4를 “내려오다”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O5를 “파괴의 신”이라고 하거나 이를 의역하여 “지구의 멸망”이라고까지 그 의미를 비약하는 것은 이미 비논리적인 추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멕시코 학계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알폰소 아레야노(2007)는 이 문구가 기원후 2012년과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문구의 해석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 “ … la verdad es que dichas profecías lo único que prevén es que el dios Bolon Yokte’ bajará del cielo, quizás por ser el dios que midió la tierra con su paso al inicio del tiempo.

신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주관한다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지구의 멸망과 같은 해석의 여지는 없다.

진지한 학술적 논의에서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의 해석을 지구의 멸망과 관련시키는 것은 그 자체만의 해석을 놓고 보더라도 극히 주관적이며 현재까지의 마야문자학의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역사적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구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체적으로 마야 문자로 이루어진 구문들의 구조와 전통 그리고 상호관련성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정한 구문의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말론의 해석은 다

른 마야의 유사한 구문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 등을 무시한 채 특정 문구의 문어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구문은 같은 비석의 나머지 손상된 부분으로 하여 해석의 애매함과 부정확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이러한 점이 오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에 나타나는 구문과 유사한 구문이 마야의 다른 비석이나 조각장식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13박뚠(Baktun)이라는 시간의 개념과 내용은 긍정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2. 13박뚠(Baktun, 13.0.0.0.0)에 멸망은 없었다.

13박뚠(Baktun)(13.0.0.0.0)을 표시하고 있는 마야의 기록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13박뚠(Baktun)이 모두 미래의 201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시점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과거의 13박뚠(Baktun)이라는 상징적인 해에서부터 얼마만의 기간이 흐른 날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13박뚠(Baktun)이 사용되거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이후의 오늘날에..."와 같은 표현을 할 때 13박뚠(Baktun)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3박뚠(Baktun)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단기가 시작되는 기원전 2333년과 같은 해이고, 서양달력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서기 0년과도 같은 것이다. 결국 이를 굳이 우리말로 바꾸어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나라가 열린..." 혹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만들어진..."이라는 문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13박뚠(Baktun)이라는 문장이 다양하게 마야의 구문들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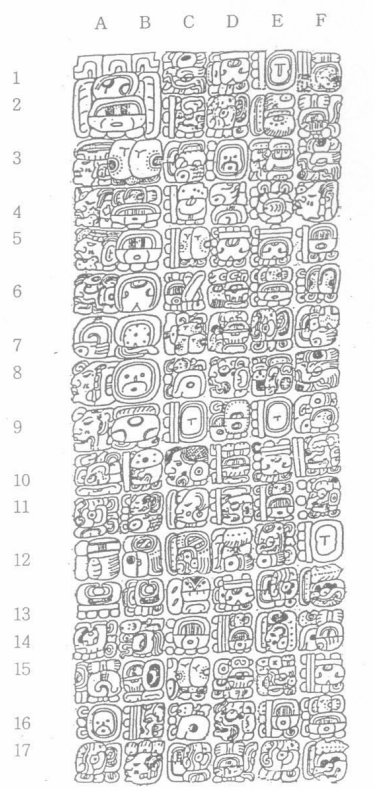

그림 2. 빨렝께(Palenque) 십자가의 신전(Templo de la Cruz) 벽면 장식

구문의 사례를 들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멕시코 치아빠스(Chiapas)주 빨렝께(Palenque) 유적 십자가의 신전 문구를 보면 D3 C4에 각각 4아하우(Ahau), 8꿈후(Kumhu) 그리고 C5에 13박뚠(Baktun)이 표시됨으로써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의 문구와 유사한 13박뚠(Baktun)이 나온다. 그 이전의 문구들은 긴 달력의 정보가 A와 B라인에 걸쳐 나오고, 이후 무완 맡(Muwaan Mat, C1)이라는 인물의 출생(A17)을 표시하고 있다. 그 후 또 다른 탄생의 사건이 있고, 뒤를 이어 4아하우(Ahau), 8꿈후(Kumhu), 13박뚠(Baktun)이 등장한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와 관련된, 즉 13박뚠(Baktun)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구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D5: two and nine score days ago
C6: one year (ago) it was changed
D6: the hearth, (at) the Edge of the Sky
C7: (at) the New Hearth? Place

D7: (then?) he descent from the sky
C8: One?
D8: ? (proper name for G1, with G8)(Stuart 2006, 121-122)

이를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 "13박뚠(Baktun), 4아하우(Ahau), 8꿈후(Kumhu)에서 일정한 날 이전에 새로운 아궁이가 생겼는데 이것은 장소적으로는 하늘과 관련된 곳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무엇인가 내려온 것과 역시 관련이 있다(신이 만들어 주다? 신이 보살펴주다?)"는 내용이다.[4] 여기에 나오는 무엇인가 "내려오는" 내용은 앞장에서 본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과 같은 맥락이다. 건물, 그 지역, 그곳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마야 신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은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마야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뚤룸(Tulum) 유적지의 건물 바깥장식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장식이 가진 종교적인 의미와 마야문자에 기록된 내려오는 신의 개념이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을 최소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다양한 면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4) 현재 마야문자학의 발전은 눈부시다. 그러나 마야문자가 쓰여진 시기의 문법을 잘 알 수 없으며 그 단어의 뜻 역시 확실치 않다. 그래서 매년 같은 마야문자 구문 해석에 관련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새 학설이 기존의 해석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의 문구들이 다르고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도 높고 지금의 해석자체도 여러 부분에 의문부호를 붙여놓은 것처럼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주류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참고문헌에 언급한 Stuart나 Grube와 같은 학자들의 기존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대략의 의미전달을 중시하였다. 더군다나 마야문자학은 독립된 학문 체계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연구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필자의 주 연구분야는 마야 문자학이 아니므로 그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의미파악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림 3. 뚤룸(Tulum)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

또한 빨렝께(Palenque)의 구문에도 13박뚠(Baktun)의 날에 중요한 무엇인가가 등장하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또르뚜게로(Tortuguero)의 비석구문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런데 빨렝께(Palenque)의 경우는 "아궁이가 등장한다. 마야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 아궁이가 역사적으로 중요하여 큰 의미를 가지는 13박뚠(Baktun)과 관련된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새로운 터전을 만든 마야가 그 날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언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테말라 동부 온두라스와의 접경지대에 있는 끼리구아(Quirigua)의 비석 C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제일 위에 A1과 B1, A2, B2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머리문자 다음으로 A3~A5까지의 5개의 문자가 13.0.0.0.0을 나타낸다. 그 이후에는 B5-4아하우(Ahau), A6-8꿈후(Kumhu)이다. 비석의 제일 앞에 나오는 13박뚠(Baktun), 4아하우(Ahau), 8꿈후(Kumhu)의 구조가 앞에서 확인한 다른 것

들과 같다. 그 다음 문자인 B6 이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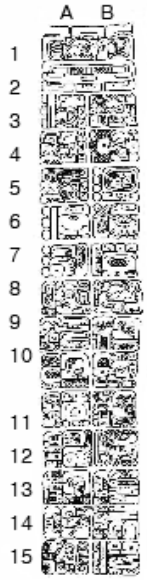

그림 4. 끼리구아(Quirigua) 비석 C

B6~B9: Ellos siembran una piedra, el Jaguar remador y el Remador de la Raya con púa, en *Nah-Ho-Chan* ('Gram-5-Cielo'); (es) la Piedra de Trono de Jaguar.

A10~B11: El siembra una piedra, *Ek Nah Chak*-?? En el Gran?/ Estandarte?-??-*ma*;(es) la Piedra de Trono de Serpiente.

A12~A13: Y luego él ató una piedra, Itzamnaaj(Dios D), (es) la Piedra del Trono de Agua.

B13~B15: sucedió en el Lugar de las 3 Primeras Piedras a la Orilla del Cielo, el Señor Seis-Cielo dirigió el final del 13 *Pik*("bultos" de años). (Van 2009, part2, 40)

마야문자는 "아궁이를 만들다"는 의미와 "비석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음 값 "tz'ap"을 "창조"를 나타내는 "세 개의 돌"을 표현할 때도 역시 같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석을 세우는 행위가 역사적인 창조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Van 2009, 41). 결국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야 사람들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는 13박뚠(Baktun)에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을 가진 비석을 세운 것이라는 점을 유추하게

된다.

13박뚠(Baktun)은, 최소한 기원전 3114년의 13박뚠(Baktun)은 마야의 중요한 행사나 사건 등이 일어난 혹은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현재와의 시간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상징적으로 13박뚠(Baktun) 당시의 역사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그 말은 기원전 3114년의 13박뚠(Baktun)에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을 열고 건물을 짓는 등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거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마야사람들은 믿는 것이다.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13.0.0.0.0이라는 마야의 달력이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는 날에 종말이 온다는 것인데 마야사람들은 이러한 주기를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또루뚜게로(Tortuguero)의 비석에 표기된 날짜가 실제로 2012년의 미래를 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내용이 멸망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마야의 달력의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는 날을 달력의 주기가 끝나는 날이기에 불길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고학적으로 관찰을 해보더라도 기원전 3114년을 전후하여 지구의 특별한 변화가 보고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때는 도자기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돌 도구가 개량되었으며, 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등 마야문명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3. 13박뚠(Baktun)은 끝이 아니다.

종말론이 주장하는 2012년에 마야달력이 완전히 끝난다거나 혹은 새로운 주기를 가진다는 전제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13.0.0.0.0의 다음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기원전 3114년에 한번 13.0.0.0.0이 0.0.0.0.0이 되었던 예에 비추어 마야달력이 다음번 13.0.0.0.0에도 역시 0.0.0.0.0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저번 달이 30일까지 있었으니 이번 달에도 30일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13.0.0.0.0의 다음날이 13.0.0.0.1이 될 수도 있다. 혹은 1.0.0.0.0.0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기간의 마야달력의 운영체계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즉 주기 없이 계속 무한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원년이 13.0.0.0.0에서 0.0.0.0.0으로 바뀐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년에서 시작한 마야달력이 13.0.0.0.0이라는 날을 다시 맞았을 때 역시 0.0.0.0.0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등의 기록은 현재까지 밝혀진 어느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0.0.0.0.0에서 13.0.0.0.0까지의 기간은 5128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전의 0.0.0.0.0에서 시작한 달력이 13.0.0.0.0이 되었을 때 0.0.0.0.0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예를 찾기에는 인류 기록의 역사가 너무 짧다. 따라서 멸망론자들이 주장하는 주기를 갖는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추정한 것이고 이러한 추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멕시코 유까딴(Yucatán)반도에 있는 꼬바(Cobá)유적지의 비석 1번에 남아있다. 이 비석에도 13박뚠(Baktun), 0까뚠(Katun), 0뚠(Tun), 0우이날(Uinal), 0낀(Kin)(13.0.0.0.0)이 각각 A11, B11, A12, B12, A13에 나타난다. 그러나 B10에 나오는 삑뚠(Piktun)은 박뚠(Baktun)의 20배 혹은 각각의 자리수가 얼마 만큼에 채워져서 상위단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비록 각각의 수 값을 정확히는 알 수 없을 지라도 마야의 달력이

13.0.0.0.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야의 숫자체계가 20진법에 근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박뚠(Baktun)이 되면 한자리 수가 올라가서 1삑뚠(Piktun)(1.0.0.0.0.0)이 된다고 가정할 때 1삑뚠(Piktun)의 날 수는 144,000×20으로 2,880,000일이 되는데 이는 7890년과 150일이 된다. 그 위 단위인 깔랍뚠(Kalabtun)은 이렇게 계산해보면 57,600,000일이고 대략 157,808년이다. 1낀칠뚠(Kinchiltun)은 이의 20배인 3,156,164년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비석의 파손으로 인하여 볼 수 없는 부분을 무시하고서라도 16개의 까뚠(Katun)의 상위단위들이 존재하고 각각이 20배씩을 더해간다면 그 숫자의 크기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과연 이 마야의 기록이 이렇게 긴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야의 달력은 13.0.0.0.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종말론이 이야기하는 마야 달력의 마지막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다.

4. 2012년 12월 21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종말론은 2012년 12월 21일을 마야가 예언한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날이 다른 천문적인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더욱 높은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만일 마야달력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 천문적인 사건과 마야 달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야는 마야대로 멸망을 예언한 날이 있고, 천문적인 현상은 그와는 또 다른 날로 멸망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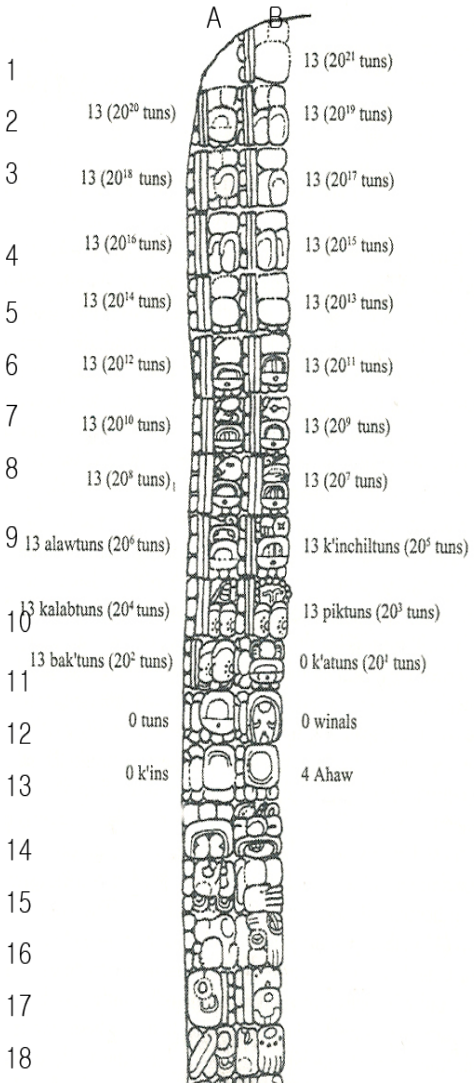

그림 5. 꼬바(Cobá)의 비석 1

앞으로 맞이하게 될 13.0.0.0.0이라는 날이 우리의 달력으로 2012년 12월 21일이 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마야의 달력과 우리가 지금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달력과의 날짜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에 구드만(Gudman)과 마르띠네스(Martínez) 그리고 톰슨(Thompson)이 합의한 날짜를 그 3사람의 머리글자를 따서 GMT로 명명하고 마야달력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 합의에 의하면 3114년 8월 13일 마야의 긴 달력이 13.0.0.0.0에서 0.0.0.0.0이 되면서 새로운 주기를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계산의 합의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날도 잘못 계산된 셈이다. 이것은 며칠, 몇 달, 몇 년의 오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마야달력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짜가 정확히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천문적으로 일어날 현상과 일치한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품게 한다.

Ⅳ. 나가는 글

최근에 미국과 멕시코를 거쳐 종말론이 우리나라에도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종말론 주장의 중심에 마야의 예언이 있다. 마야달력의 13박뚠(Baktun)(13.0.0.0.0)은 마야달력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날이 2012년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멕시코 또르뚜게로(Tortuguero) 유적지의 6번 비석과 다양한 마야달력의 계산방법 등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마야달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르뚜게로(Tortuguero)유적지 6번 비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마야문명의 우주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또르뚜게로(Tortuguero) 6번 비석이 표시

하고 있는 날이 기원후 2012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다른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다. 논란이 될 수 있는 O4, O5를 "마야의 신이 내려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것이며, 그 신의 이름은 문어적으로 "9개의 도움(Nine Support God)"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물을 만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날을 기리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괴"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구문은 마야의 다른 문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멕시코 빨렝께(Palenque)의 십자가의 신전의 구문이나 과테말라 끼리구아(Quirigua)의 비석 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3박뚠(Baktun)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의 의미를 새기고 그날을 기점으로 한 오늘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되었다. 마야의 달력이 새로운 주기를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 13박뚠(Baktun)에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터전을 만든다는 뜻의 "새로운 아궁이를 만든다" 혹은 역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돌을 세우다" 등과 같은 축복받는 일들이 생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야달력의 돌아오는 13박뚠(Baktun)이 마야달력의 끝이 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주기를 가지게 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종말론은 마야달력이 13박뚠(Baktun)에 끝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3박뚠(Baktun)의 다음날이 자연스럽게 0.0.0.0.1이 될 수 있으며, 13박뚠(Baktun)이 새로운 주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13.0.0.0.1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멕시코 꼬바(Cobá)유적지의 1번 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야달력이 무한대에 가깝게 긴 시간을 말하고 있고 박뚠(Baktun)의 주기가 13이라면 1.0.0.0.0.1이 될 수도 있다. 즉 "마야 달력이 끝난다"라고 하는 주장은 불

가능하다.

2012년 12월 21일이 마야 긴 달력의 13박뚠(Baktun)의 정확한 날인지 조차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 날의 계산은 오늘날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직 까지도 가설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종말론이 주장하는 이날이 다른 천문적이고 지구과학적인 부분과 일치한다고 하는 주장도 의심해 볼 만하다.

마야인의 우주관은 시작과 종말의 개념을 중시하는 직선적인 우주관과는 차이가 크며 윤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마야의 대표적인 설화인 뽀뽈부(Popol Vuh)나 또또니까빤사료(El Título de Totonicapán), 칠람발람(Chilam Balam) 등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요소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복 이후 유럽에서 건너온 것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구절들이 나온다든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치시키려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고대의 사료들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구성은 마야인들의 윤회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또한 52년의 주기를 가지는 마야의 짧은 달력의 경우 모든 날을 산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마야 사람들이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종말과 파괴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진짜로 지구의 멸망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X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구의 온난화가 엄청난 자연재해를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마야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다.

참고문헌

글래드스톤, 윌리엄(2009),『2012 열두명의 현자』, 이영래 역, 황소북스.
김재수(2009),『2012 지구대전환』, 소피아.
나미키 신이치로(2009),『2012 지구멸망』, 오경화 역, 코리아하우스.
박찬호 편저(2009),『2012 지구 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은하문명.
브라운, 실비아(2010),『종말론 : 2012년 마야력부터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까지』, 노혜숙 역, 위즈덤하우스.
브레이든, 그렉(2008),『월드 쇼크 2012』, 이창미, 최지아 공역, 샘앤파커스.
_____(2009),『2012 아마겟돈인가, 제2의 에덴인가?』, 김형준 역, 물병자리.
송영복(2005),『마야』, 상지사.
_____(2007),『라틴아메리카 강의노트』, 상지사.
스트리버, 휘틀리(2009),『2012 영혼의 전쟁』, 안종설 역, 문학수첩.
이경기 편(2010),『2012 지구 종말』, 김&정, 에버그린 문고 85.
조지프, 로렌스 E.(2007),『아포칼립스 2012 : 최고의 시간과학자 마야가 예언한 문명 종말 보고서』, 강미경 역, 황금나침반.
현홍균(1998),『예언 2012년』, 유림.
히치콕, 마크(2010),『2012 성경 그리고 최후의 날』, 조혜란 역, 동해출판.
Andrews, Synthia and Andrews, Colin(2008),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2012"*, Alpha.

Arellano, Alfonso(2007), "Descifran profecías mayas" http://www.elsiglodetorreon.com.mx/noticia/ 287560.descifran-profecias-mayas.html (2009. 10. 22).

Aveni, Anthony(2009), *The End of Time: The Maya Mystery of 2012*, Boulder: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Barrios, Carlos(2009), *The Book of Destiny: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Ancient Mayans and the Prophecy of 2012,* New York: Harper One.

Geryl, Patrick(2007), *How To Survive 2012*, Kempton: Adventures Unlimited Press.

Grube, Nikolai; Simon Martin, and Martin Zender (presenters)(2002), "Palenque and its Neighbors", in Phil Wanyerka (transcription & ed.)(ed.), *The Proceedings of the Maya Hieroglyphic Workshop*, Austin: University of Texas, March 9-10.

Houston, Stephen(2008), "What Will Not Happen in 2012" http://decipherment.wordpress.com/2008/12/20/what-will-not-happen-in-2012 (2009. 10.10).

Macia, Tito(2009), *Descifrando los Codices Mayas 2012: El secreto del Codice Dresde y El final de los tiempos*, México: EDICIONES INDIGO.

Stuart, David(2006), *Sourcebook for the 30th Maya Meetings*, Austin: The Mesoamerican Center, Department of Art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March 14~19.

Van Stone, Mark, "No es el fin del mundo: Lo que los antiguos mayas nos dicen acerca del 2012" http://www.famsi.org/spanish/research/vanstone/2012/index.html (2009. 09.

20).

영화

롤랜드 에머리허 감독(2009), 『2012』, 미국, 캐나다, 소니픽쳐.

방송

『2012년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김지은PD,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37회, 2009년 11월 7일 방송

논문투고일자: 2010년 3월 4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